

# 책 보며 공동육아...복합커뮤니티 시설로 새단장

### 남구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생활SOC 사업 선정 24억 투입 층별 배치 변화 이용 편의 도모

광주 남구문화정보도서관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독서환경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 새단장했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문화정보도서관은 주민들의 독서문화 증진과 쾌적한 문화향유 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비 24억원을 투입,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28일 문을 열었다.

지난 2003년 11월 개관한 문화정보도서관은 도서와 비도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식 정보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을 비롯한 문화향유 공간으로 이

용돼 왔다. 10만여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자는 약 20만명이다.

주민들의 정보 이용 욕구에 부응하고 독서문화를 장려하고자 마련된 도서관은 4층의 어린이자료실, 5층의 디지털 자료실, 6·7층의 종합자료실, 일반열람실로 이뤄졌으며 다채로운 도서·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시설 노후화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남구는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남구는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독서환경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도서관 층

별 배치에 변화를 줘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도서관 5층은 어린이를 위한 독서 공간으로 꾸며졌다. 알록달록한 색상과 서가를 보유한 2개의 어린이 자료실을 비롯해 99㎡(30평) 규모의 공동육아 나눔터를 배치해 부모와 자녀가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6층에는 만남과 대화의 장소인 홀&라운지 및 종합자료실·동아리방·보존실이 들어섰으며, 7층은 열람실과 휴게공간으로 채워졌다.

새롭게 단장을 마친 문화정보도서관에서 "2021 하반기 문화정보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50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도서·환경·영어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가신청은 '광주남구문화정보도서관' 홈페이지(<http://lib.namgu.gwangju.kr>)를 통해 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도서관 재개관 이후 주민들에게 다양한 신간 도서 및 프로그램



광주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남구문화정보도서관 5층 공동육아 나눔터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유롭게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남구 제공

을 선보일 계획이다"며 "새롭게 단장한 문화정보도서관에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빈 기자

## 지투리 소식

### 직원간 상호존중 시책사업 추진

광주 남구가 반부패 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갑질 없는 행복한 직장과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선보인다.

남구는 29일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갑질 상담 창구 운영을 비롯, 동료 간 칭찬을 독려하는 전화통화 연결음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매일 한 차례씩 진행되는 '상호존중의 날'이 매월 두 차례로 확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갑질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갑질 피해 신고 및 제보에 대한 익명성 보장 등을 위해 분청뿐만 아니라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에서 지도·감독하는 민간위탁과 보조사업 수행 종사자까지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질 문화 타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 남구민 북 페스티벌 작품 공모

광주 남구는 오는 11월 6일 개최 예정인 제8회 남구민 북 페스티벌을 앞두고 작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제8회 남구민 북 페스티벌 공모전 작품 접수가 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응모 부문은 글쓰기 4개 분야와 동영상 분야로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글쓰기 부문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소개하는 '가족과 함께 도서관'을 비롯해 어린이가 추천하는 '어린이 동화책', 가슴속에 자리 잡은 시 한 편을 소개하는 '내 안의 시집',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독서 백일장'으로 구성된다.

동영상 공모전 주제는 '남구 책방 바깥'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동네 서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남구청 도서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 시내버스 유계 승강장 정비

광주 남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유계 승강장 10곳에 대한 정비와 가로 등 교체 작업을 실시한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시내버스 유계 승강장 정비공사가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정비 대상은 총 10곳으로, 사업비 1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낡고 오래돼 승강장 기능을 상실한 월산4동 정류소 등 5곳은 철거 후 재설치하고, 노대동 노대제 정류소 등 5곳은 신규로 설치한다. /김민빈 기자

## 덕남마을에 가족 힐링촌 조성한다

### 자연생태체험·캠핑 공간 내년 연말까지 10억 투입

광주 남구 덕남동에 자연생태 체험장과 캠핑장을 갖춘 대규모 가족 힐링촌이 들어선다.

남구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2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에 선정돼 내년 연말까지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덕남동 일원에 6,612㎡(2,000평) 규모의 가족 힐링촌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사업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공간들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발제한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 및 소득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의 4번째 결실인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 조성사업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사람과 환경, 테마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먼저 가족 힐링촌 출입구에는 사위장과 취사장, 화장실을 비롯해 야외쉼터가 조성되며, 부대시설 인근에는 주차공간과 캠핑장 데크를 갖춘 제1캠핑구역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제1캠핑구역은 지나고 난 뒤에는 나무 숲길을 따라 주차공간과 야영장, 산책로가 조성된 제2캠핑구역이 들어선다.

제2캠핑구역 뒤편에는 수목원과 자연생태 체험장, 야외쉼터 등 생태체험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마을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가족 힐링촌 내 재투자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은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차량 소음은 물론이고 인적조차 드물어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장소"라며 "이곳에 광주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가족 휴양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빈 기자

## 사직동 관덕정 '활쏘기 체험캠프'

###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광주 활터의 중심지이자 우리나라 전통 기예인 국궁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남구 사직동 관덕정에서 '국궁 활쏘기 가족사랑 체험캠프'가 운영된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1월 27일까지 사직공원 내 관덕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국궁 활쏘기 가족사랑 체험캠프가 열린다.

체험캠프는 도교올림픽 이후 국궁에 대

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 문화 알리기 및 체험의 기회 제공 차원에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씩 진행된다.

자녀와 부모를 동반해 총 10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은 활쏘기라는 색다른 체험활동을 통해 전통 기예를 배우게 된다.

가족사랑 체험캠프 참가자들은 관덕정 사원 대표인 강원주 사두와 함께 활쏘기

자세부터 화살 고르는 방법, 각지 사용법 등 기초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또 근거리인 7m 쏘기를 비롯해 원거리인 15m 및 30m 활쏘기를 연습하며, 11월 말에 열린 예정인 '관덕정 사두 배 활쏘기 대회'에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국궁 활쏘기 가족사랑 체험캠프는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주민들의 사기 진작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마련한 것이다"며 "재능 개발 및 가족 간 유대감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민빈 기자



지난 25일 광주 남구 사직동 관덕정 내에서 열린 '국궁 활쏘기 가족사랑 체험캠프' 참가자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남구 제공

M 전남매일 | 제11회 학교폭력예방 연중캠페인 |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 네모난 교실은 잊어라!



###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개년 175개교, 1조3천억 투자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간혁신
-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합화